

지역 소식통

고창군-전북개발공사 협약
백양지구 도시개발 본격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24일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백양지구 도시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그간 고창읍 고창읍 도심 내 지역주민의 지속적 주택 수요가 이어졌다. 또 최근 고창일 반산업단지 유치권 해소에 따라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지면서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현재의 주택량으로는 향후 기업 입주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에 고창군에선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상호 인지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고창읍 덕신리 일원 15만 3033㎡(약 4만5000평)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25년전 현 전북개발공사의 전신인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한 월곡 택지지구에 비해선 5000평 정도 작은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군과 개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 간 사업 관련부서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평가
반암 정보화마을 '최우수'

고창 반암정보화마을이 2020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평가에서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최우수마을로 선정됐다.

반암정보화마을은 인근 아산 초등학교와 지매결연 맺고 매년 벼농사 체험, 김장담그기, 팔안깎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을정보센터를 돌봄교실로 꾸미고 목공 체험, 숲 체험,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한 점 등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반암 정보화마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산물 매출 감소, 체험 인원 급감 등 경제적 타격이 크지만 한가위 온라인 장터나 블로그 마케팅 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보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아동 마스크 배부

고창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3차 대유행에 대응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마스크 배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하는 마스크는 KF94 어린이용 마스크로 관내 어린이집 22개소 이용 아동 1000여명에게 1인당 10매를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

고창군은 군민들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마스크 비축에 나서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약30만장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특히, 지난 5월 7월에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900여명에게 약 4000장의 마스크를 지원했다.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군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군은 어린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지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전 시민에 10만원씩"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기로, 10만9026명에 선불카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시의회 의장은 30일 정읍시청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정읍시의회와 협의해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

2020년 12월 29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 둔 10만9026명이 해당되며, 재난예비비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다. 시는 신속한 소비 활동을 위해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지역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활동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차 기본소득지원과 44,313세대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지원 및 집단 확진으로 봉쇄 격리됐던 양지마

을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 등 자체적으로 204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중점축차와 취약계층, 학원을 비롯한 다중시설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소독약품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밖에도 시는 정읍시장 상품권의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소상공인과 지역업자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중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상권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어려운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대설주의보... 제설작업 '총력'

각 실과소별 담당구역 설정
취약지역 연화칼슘 살포 등

정읍시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30일 새벽에 내린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읍시가 대대적인 제설작업에 나섰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눈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시청 전 직원은 밤새 내린 눈과 기온 강하로 결빙된 도로의 사고위험을 사전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 서둘러 제설작업에 나섰다.

이번 제설작업은 각 실과소별 담당구역 설정하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와 보도의 취약구간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 주민들의 능동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지역 내 설치된 제설할 곳마다 연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비치하는 작업도 펼쳤다.

시는 이날 새벽 4시부터 제설 차량 12대를 동원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도로면 결빙 예방에 힘을 쏟았다.

또한, 급경사 도로인 말고개 도로 열



정읍시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30일 새벽에 내린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읍시가 대대적인 제설작업에 나섰다.

선 설치와 초동 제설작업에 효과적인 자동 연수 살포 장치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했다.

특히, 말고개 열선 도로는 열을 가해 영상 온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동으로 제설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출근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출근길 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겨

울철 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 도로 설해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제설 대책 중앙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코로나19 위기 속 적극 행정·협업 행정 빛났다

33건의 최우수·우수기관 선정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 행정과 협업 행정을 펼쳐 33건의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중앙단위 평가 12건과 전북도 단위 평가 20건, 민간부문 평가 1건 등 총 33건의 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8억6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선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장 전반에 걸쳐 골고루 선정되어 치우침 없는 행정력이 더욱 돋보였다.

주요 실적으로는 ▲공공지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 최우수(행안부) ▲진국 공립박물관 평가 최우수(문체부)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 종합평가 최우수(환경부)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평가 최우수(농촌진흥청) ▲환경개선부담금평가 최우수(전북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 최우수(전북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전북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원예산업종협회 이행실적 평가와 지방규제혁신 평가,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평가 대표 관공지 육성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 행정과 협업 행정을 펼쳐 33건의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되면서 총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기관 선정은 더욱 빛났다.

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보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단위 평가에서 2건 차에 관리사업 평가 등 전북도 단위 평가에서 7건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 밖에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

준 진단평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성과평가 ▲토지 및 지적관리업무 종합평가 ▲생태관광지 평가 ▲국정 시책 합동 평가 ▲산림자원 조성 분야 ▲주택·건축 분야 종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력이 방위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적극 행정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2021년 신년사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최우선 과제로"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다사다난했던 경자년(庚子年) 한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새로운 희망의 신축년(辛丑年)이 밝아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지구의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경제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세계 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전세계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지력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읍시의회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과 연수원 유지에 매진하였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과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의회는 시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참 뜻을 경허하게 받아들이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난 해소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행복시대와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신축년(辛丑年)! 친절한 태양이 밝아오는 새해 아침!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양한 정책·예산으로 경제 활성화 집중"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고창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삶의 공간은 멀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는 신축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군민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 큰 열정을 모으고 군민이 원하는 일

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군민이 필요로 할 때 발 벗고 나서는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은 부지런함과 우직함의 상징인 흰 소의 해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집중하여 더 즐겁고 삶의 여유가 넘치는 고창군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도 고창군의회가 군민 결심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를 도약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안군, 2020년 공모사업 역대 최대 성과

78건 선정, 1680억 확보 쾌거

2020년 중앙부처 및 전북도 공모사업에서 부안군은 최종 78건이 선정되며 1,008억원의 국도비(총사업비 1,680억)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85건 국도비 769억(총사업비 1,159억)과 비교하여 234억, 30%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민선7기 들어 각종 중앙부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강도 높게 국도비 확보에 집중해 온 결과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군민 실생활과 직접 연계된 생활밀착형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이 대거 선정되어 부안군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스마트하게 대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부안군 국가예산 5,703억원 확보에 이어, 공모사업에도 역대 최고의 성과를 범으로써, 그동안 민선7기가 추구해 온 '협력'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공모사업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포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89억(국24, 도8) ▲부안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 38억(국20)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39억(국27.3)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150억(국36, 도6) ▲2021년 어촌뉴딜(양포, 작당) 94.5억(국65, 도83) ▲2021년 어촌뉴딜(치도) 93억(국64, 도83) ▲부안 상권리캐상사업 80억(국40, 도8) ▲푸드 앤 레포츠 센터(부안 푸드플랜 연계) 140억(국46억, 도3.6) ▲부안 청우 문화센터 19.4억(국1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5억(국8.4) 등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현재 내리막이 2년만 분주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2021년에도 연초부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동향을 분석하고 부서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